

연말 탱커수주로 마무리 중

코멘터리

연말 수주는 ...

- ① 현대중공업이 Enesel로부터 올해 초 수주했던 VLCC 2척에 딸린 옵션 2척에서 옵션 1호선을 5월에 계약했고, 지난주 마지막까지 호선도 추가 수주했습니다.
- ② 수주잔고 12척으로 크게 줄어든 수빅조선사도 그리스 Pantheon으로부터 수에즈막스 탱커 2척 LOI를 따냈습니다.
- ③ 대우조선해양도 Embiricos의 Aelos로부터 VLCC 1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Aelos의 신조투자는 1999년 이후 18년만인데, 그간 중고선 매매를 통해 7척 선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12년만에 현대중공업에 신조 발주한 Kyklades와 같은 이유로, 낮은 신조선가와 2019년의 시황 회복을 기대하며 투자를 단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회복한 탱커 발주는 2018년에도 견조할 전망이다.

경쟁사들의 수주

- ④ 22,000TEU 건조처로 중국을 선택한 CMA-CGM은 2,200TEU 피더선 3척도 중국 양지장에 발주했습니다.
- ⑤ 중형 벌크선 중심 조선사 Chengxi는 홍콩 선사로부터 IMO Tier-III의 50k MR 탱커 4척을 수주하며, PC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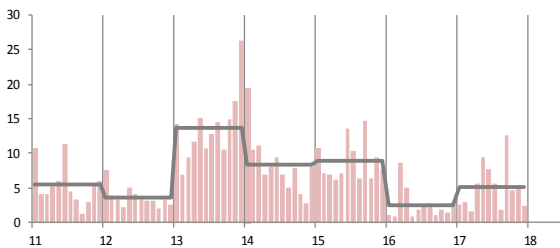
해양과 업스트림의 2018년 회복을 기대 및 예상합니다.

- ⑥ 시장 리서치 EMA에 따르면, 2017년 이미 FPS(Floating Production System) 발주는 2014년 이래 가장 많은 150억\$로 회복했고, 향후 5년간 124개의 수요에서 940억\$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힙니다.

- ⑦ 사우디 Aramco는 인프라투자, 드릴링, 오일 생산 유지 등에 향후 10년간 414십억\$를 투자한다고, 가이드를 기존 334십억\$에서 상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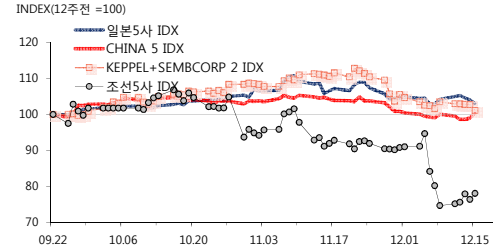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2017년의 마지막 Flash를 425호로 마치고, 2018년에 찾아뵙겠습니다. 10년 불황 사이클의 끝자락에 와있는 업황, 실적과 주가에서, 변곡점을 포착하는데 기민해야하는 2018년이 될 듯 합니다.

▶ 월 발주 현황: 여름 전 강세 이후 다소 소강 상태로 2017년을 마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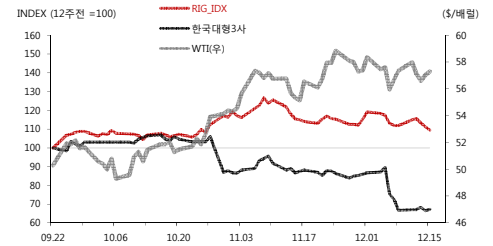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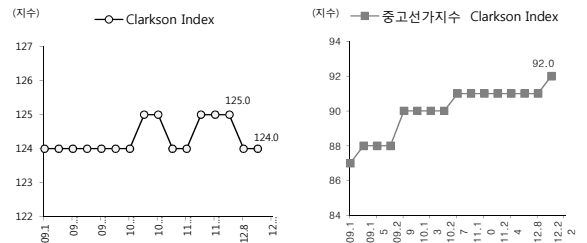
▶ 한/중/일/싱 주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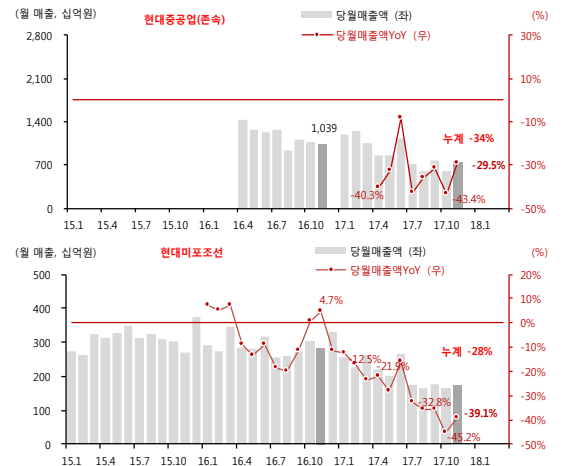
▶ 유가와 RIG 플레이어



▶ 신조선가치수 1p 하락



▶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월매출: 11월에도



주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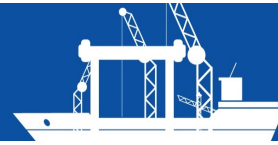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연말 마무리 수주 국면

- 현대중공업 Enesel VLCC 1척 추가 수주
- 대우조선해양 Embiricos VLCC 1척
- 수빅, Pantheon 수에즈막스 2척

경쟁 국가들의 수주

- CMA-CGM 피더 3척, 양지장으로
- 홍콩 Goldwin, Chengxi SY에 MR탱커 발주: Chengxi는 MR 시장 진입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치수 124p 보합, 중고선가치수는 탱커 강세로 1p 상승한 92p

신조선가치수는 전선종 보합에 지수도 124p 제자리

중고선가는 탱커 전선종 리세일 가격과 VLCC, 아프리카막스, 핸디탱커 중고선가가 오르며, 지수도 92p로 1p 상승

▽ 현대중공업, Toisa와의 해양작업선 소송 \$45m 지급하며 종료 예상

- 2013년 1월 현대중공업에 Offshore construction vessel을 \$145m에 발주한 Toisa는 2016년 4월 계약파기를 선언했고,

- 이에 현대중공업은 계약종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시했고, Toisa도 \$67.5m에 이자 등을 포함한 \$90m의 소송을 건 상황

- Toisa는 미국 Chapter 11에 들어간 상황인데,

- 최근 현대중공업과 합의로 \$45m에 종제가 예상된다는 업데이트

>> 현대중공업은 2016년 2분기 2기의 해양 작업선에서 인도연기의 사유로 670억의 손실을 기 반영한 상황입니다.

△ 삼성중-가스공, LNG선 국산화 지연 소송전... '100억대 소송 vs 중재 노력'

- 아래 삼성중공업 부문 참조

▲ 대법 "공정위 과징금 전액 대우조선해양에 돌려줘라"

<http://lnr.jl/nvITY>

- 아래 대우조선해양 부문 참조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생산

△ ExxonMobil, Eni 모잠비크 지분 Farm-in 마무리

- Area4의 지분 70%를 보유한 Mozambique Rovuma Venture의 지분 25%를 ExxonMobil이 매입: Eni와 ExxonMobil이 각각 37.5%, CNPC가 28.6% 보유

- 나머지 30%는 Galp Energia, KOGAS, ENH가 각각 10%씩 보유

- 사업 운영은 Eni가 그대로 맡기로 함: 2015년 마지막 평가시수가 완료되었고, 올해 5월 FID, 육상 외의 Coral FLNG는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수주

△ 사우디 Aramco, 10년 동안 \$414bn 투자로 가이던스 상향

- 사우디 아람코는 향후 10년간 \$414십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 인프라, 드릴링, 신사업 등

- 이는 작년에 밝힌 2025년까지 \$334bn보다 크게 늘어난 투자 규모

- 드릴링에 \$134bn, 오일생산량 유지에 \$78bn, 화학제품 생산에 \$20bn 언급: 그 외에 태양광, 풍력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

△ EMA 전망: Floater 시장 회복 중

- 싱가포르 EMA의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50억\$의 FPU가 투자됨으로써 2014년부터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중

- Castberg, Coral 등이 투자되어, 2015년 59억\$, 2016년 39억\$의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음

- 향후에는 124개의 FPS 수요(최소 80 ~ 최대 173)에서, 향후 5년간 940억\$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힘

- FPSO가 수요의 40%, 투자금액의 2/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브라질에서 향후 5년간 4기의 FPSO 발주 대기

- 또한 올해 11기(?)가 투자된 FSRU 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도 밝게 평가

▶ LNG & LNG 추진

▲ Maran의 Lay-up LNG선, LNG 시장 회복에 용선 및 재가동 성공

- 18개월간 Lay-up 중이던 2007년산 145k 선박을 최근 \$45,000~\$50,000/일에 용선 성공

- 운임은 2016년 쉬게 될 무렵보다 두 배나 개선된 것

- 해당 선박은 한 때, FSRU로의 개조 대상으로 꼽히기도 함

- Maran Gas는 2007년 해당선박을 \$92.5m에 리세일로 매입해 당시 LNG 선대가 5척으로 늘었고,

- 현재는 34척의 LNG선 선대 보유: 26척 운영 + 8척 건조 + 추가로 FSRU 1기 건조

▶ 기타

▲ Trafigua, 2017년에 30척 탱커 발주로 마무리

- 올해 BoCom을 통해 22척의 탱커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진 Trafigua는, Annual Report에서 총 30척 탱커 발주를 한 것으로 집계

- 그러나 대규모 투자에도 여전히 유력한 탱커 용선사로서 자리 잡을 거라고 설명

- 오일 마켓은 2018년까지는 공급과잉이 이어지지만 2019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시장 판단

△ Vale, 마지막 19척 VLOC 모두 BoCom에 매각

- Vale는 마지막으로 2척의 400k VLOC를 \$178m에 BoCom에 매각함으로써 19척의 자사선을 모두 처분

- 이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했고, VLOC 자사선 보유에서 벗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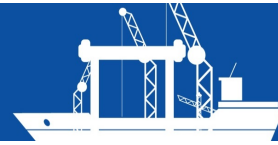
- Vale는 최근 대규모 VLOC COA 투자를 단행한 상황

△ Yamg Ming, 노후선 20척 스크랩

- 3,000teu ~ 8,000teu의 20척 컨테이너선을 해체하고

- 신조 또는 용선한 비슷한 선형 또는 조금 더 큰 선대로 대체

- 또한 대만 TIPC(Taiwan International Port Corp)로부터 차입금 출자전환 투자를 받음으로써 협력관계 강화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③ ▲ Enesel, 현대삼호중공업에 옵션 행사로 2척 추가 발주

- 올해 2월 현대중공업에 2척의 VLCC를 발주하며, 옵션 2척을 보유했던 Enesel은
- 5월에 1척, 그리고 최근 1척의 옵션을 모두 행사한 것으로 전해짐
- 선박은 1호선이 2018년 7월, 2~3호선이 2018년 10월과 11월, 4호선은 2019년9월 인도 예정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Embiricos 18년만의 VLCC 투자: DSME

- Embiricos의 Aeolos MNG가 대우조선해양에 318k VLCC 1척을 발주했는데, 1999년 이래 18년만의 신조 투자
- IMO Tier-III, 2020년 인도, 신조선가는 \$84m
- 올해 1월 VLCC 2척을 한진중공업-수빅에 \$82m~\$83m에 발주한다고 알려진 바 있었지만 실제 발주로 연결되지는 않음
- 동선사는 주로 중고선 매입이나, 경매를 통해 선대를 확대해 음: 최근에는 2010년~2013년에 5척의 VLCC를 \$170m를 들여 매입
- 현재 동선사의 7척의 VLCC는 모두 1998년~2001년 건조된 노후선
- >> 최근 Kyklades Maritime도 12년만에 VLCC 4척을 투자하며, 낮은 신조선가를 이용해 선대 리뉴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 2018년 중으로도 노후 VLCC 교체투자가 꾸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리스 Pantheon → 수빅, 아프라막스 탱커 2척

- 114k DWT의 LOI를 체결: 신조선가는 \$42.5m~\$43.5m으로 전해짐
- 동선사는 올해 9월 STX조선에, 2019년 인도로 MR탱커 4척을 발주한 이후 2번째 신조 투자: 신조선가는 \$33m
- 동선사의 선대는 21척: VLCC 9척, 수에즈막스 8척, 아프라막스 4척 + 일본 Namura SB에서 115k 아프라막스 탱커 2척을 건조 중
- 한편 수빅은 12척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음: 올해 10월 Cardiff로부터 VLCC 4척, \$300m를 사실상 수주했지만 RG 발급 취소된 바 있음
- 12척은, VLCC 1척, CMA CGM의 2만teu 3척, Exmar의 LPG 2척, 현대상선과 Seaspan으로부터 11,000 teu 2척씩, EPS로부터 아프리카탱커 2척

▽ CMA CGM → Yanzijiang, Feeder \$90m 발주

- 2019년말~2020년 인도로 2,200teu 3척을 \$90m에 발주
- 척당 \$29m에 Scrubber-Ready 형태로 발주
- 이 선박들은 유럽, 프랑스령 기아나, 남브라질을 서비스 할 예정: 기존 3척에 추가

▷ BoCom, 캄사르막스 벌크선 4척 로컬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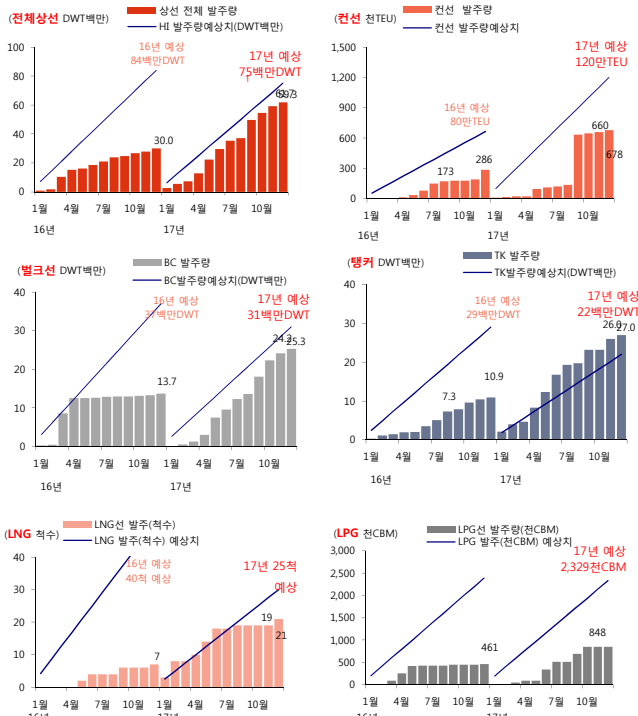
- BoCom은 중국 Chengxi SY에 상반기에 발주한 2척에 추가로 4척의 벌크선을 발주: 투기발주가 아니라고 밝힘
- 앞의 2호선은 2018년말과 2019년 중순, 이번 4척은 2019년말부터 인도 예정
-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았고, 모두 Tier-III

▼ Chengxi Shipyard, MR 탱커 시장 데뷔

- 중형 벌크선 전문 조선사인 Chengxi는, 홍콩 Goldwin shipping으로부터 4척의 MR 수주: Tier-III
- 2척 + 옵션 2척, 2019년말~2020년 상반기 인도 예정이며, 일본 디자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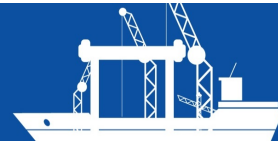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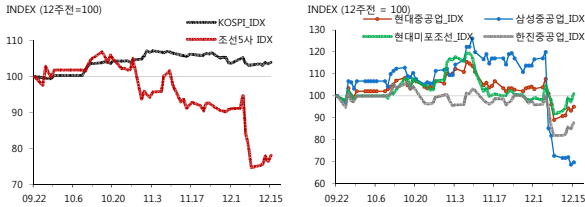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11월5주								
BIG6	Samsung HI	17.11.28	북미	Teekay Shuttle	TK	129k DWT	2020	2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7.4.27	한국	GS-Caltex Corp.	PTK	7k DWT	2018	1
중국	Bohai Shipbld	17.10.1	유럽	Golden Ocean Group	BULK	208k DWT	2019	2
	Huangpu Wenchong	17.11.24	중국	Unknown Chinese	OFF-SUPP	10k GT	2020	1
중국	Jiangsu New YZJ	17.11.29	유럽	Yasa Shpg. Industry	BULK	209k DWT	2020	3
	New Times SB	17.9.1	일본	Lepta Shipping Co.	BULK	180k DWT	2019	1
	Fujian Southeast SB	17.7.1	중국	Minsheng Financial	PTK	115k DWT	2019	4
			아시아	Navig8 Group	PTK	50k DWT	2019	4
			중국	Fujian Anda Shpg	BULK	21k DWT	2019	1
				Fujian Shengda Shpg	BULK	21k DWT	2019	1
일본	Sumitomo (Yokosuka)	17.11.20	유럽	Thenamaris	TK	112k DWT	2020	2
17년12월1주								
BIG6	Hyundai Mipo	17.11.29	유럽	Eastern Med Mar	PTK	50k DWT	2019	3
	Daewoo (DSME)	17.12.6	유럽	Maran Gas Maritime	LNG	173k cu.m.	2020	1
					FSRU	173k cu.m.	2020	1
			유럽	Aeolos Management	TK	318k DWT	2020	1
	Hyundai HI (Ulsan)	17.12.8	유럽	Olympic Shpg & Mngt	TK	319k DWT	2019	1
			유럽	Olympic Shpg & Mngt	TK	319k DWT	2019	2
중국	Huangpu Wenchong	17.12.8	유럽	Cosmoship Managemt	CONT	2k TEU	2019	4
중국	Jiangxi Huadong	17.12.1	중국	Fujian Changan Shpg	OTHERS	21k DWT	2019	1
	Nantong COSCO KHI	17.10.1	유럽	Unknown Greek Owner	BULK	61k DWT	2019	2
	Fujian Mawei SB	17.12.1	아시아	Heng Tong Fuels	PTK	24k DWT	2019	1
	GSI Nansha	17.12.8	아시아	Formosa Plastics Co	PTK	52k DWT	2019~2020	3
일본	Sasebo HI	17.12.6	Unknown	Ugland Marine	BULK	61k DWT	2020	1
17년12월2주								
BIG6	Hyundai HI (Ulsan)	17.11.1	Unknown	Enesel S.A.	TK	300k DWT	2019	1
중국	Jiangsu New YZJ	17.12.15	유럽	CMA CGM	CONT	2k TEU	2019~2020	3
		17.12.13	중국	SITC	CONT	3k TEU	2019	2
	New Times SB	17.12.13	유럽	FrontMarine	BULK	65k DWT	2020~2021	8
	Wuchang SB Group	17.12.15	유럽	Marnavi	PTK	14k DWT	2019~2020	2
	Chengxi Shipyard	17.12.7	아시아	Goldwin Shipping	PTK	55k DWT	2019~2020	2
		17.12.5	중국	BoCom Leasing	BULK	82k DWT	2020	2
	Qingdao Wuchuan HI	17.12.1	중국	Fujian Guohang	BULK	86k DWT	2019	3
	Bonny Fair Hwy Ind	17.5.1	남미	Unknown Chilean	FERRY		2018	2
	Samjin Shipbuilding	17.12.7	Unknown	Ocean Tankers	PTK	12k DWT	2019	2
	Dayang Offshore	17.12.8	한국	Shinsung Shpg. Co.	BULK	7k DWT	2019	4
일본	I-S Shipyard	17.7.1	Unknown	Unknown	BULK	63k DWT	2019	1
	Shin Kochi Jyuko	17.8.1	일본	Dowa Line Co Ltd	BULK	38k DWT	20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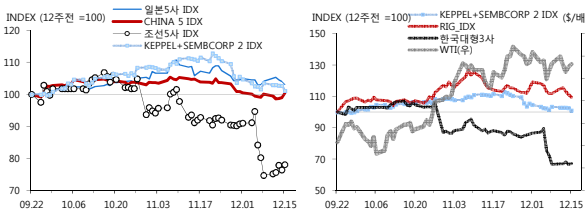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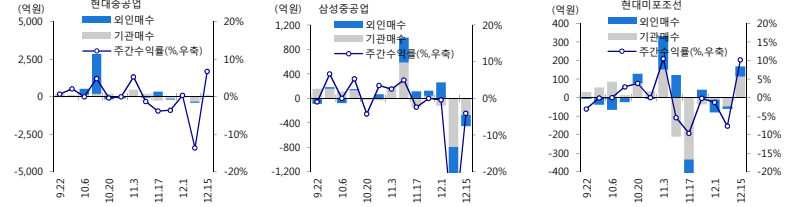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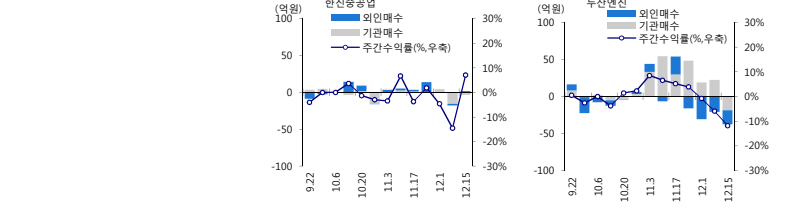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현대중, 국내 선사 대상 'LNG추진선' 기술 설명회

<http://lnr.ii/BJONU>

현대중공업은 최근 부산 현대글로벌서비스 본사에서 폴라리스워킹, SK해운, 대한해운, H-line 해운 등 9개 국내 유수 선사들을 대상으로 ... 자체 개발한 LNG추진 벌크선에 대한 기술 설명회 소개된 LNG추진선형은 18만톤급 및 25만톤급 대형 벌크선 디자인

▶ 현대중공업 보도

▷ "무조건 연내타결" 현대중 노사, 2년치 임단협 집중교섭

<http://lnr.ii/6loQN>

노조는 앞서 지난 10월 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임 노조 소속 박근태 교섭위원을 지부장으로 선출: 취임식과 함께 연내타결 선포식을 가진 노조 2년치 단체협상 연내 마무리를 최우선 목표로 정함: 이번 주부터 매일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열어 쟁점인 성과급·타결금, 상여금 월할지급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나가고 있음 노조는 성과급과 격려금을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계열사 지급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 7월 말 ▲기본급 동결(정기승급분 2만3000원 별도)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지급 ▲무채에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 ▲노사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협력사 처우 개선 등에 잠정 합의하며 단체교섭 21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한 바 있음

▷ 현대중공업, 태양광 계열사 아반시스 매각 완료

<http://lnr.ii/FoZIT>

현대중공업이 현대아반시스 지분 50%를 매각: 이로써 지난 4년간 추진한 태양광 사업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앞으로 태양광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가 전담 현대아반시스 주식 2200만 주(지분율 50%)를 1300만 달러(약 142억 원)에 매각: 지분은 사업 파트너인 독일 아반시스(AVANCIS GmbH&Co. KG)가 전량 인수 박막형 태양전지 사업을 위해 2011년 프랑스 생고뱅(Saint-Gobain)과 50대 50 합자로 설립한 계열사로서,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외국인 투자지역에 연간 생산능력 100MW 의 태양전지 생산 설비를 건립: 설비 구축에만 약 2000억 원이 투입 오창공장은 2012년 본격적인 태양전지 양산을 시작했지만, 2013년 초 휴업에 들어갔고 공장 가동도 중단 현대아반시스 외에 폴리실리콘 양산을 위해 설립한 KAM은 2013년 10월 KCC에 흡수합병된 바 있음

△ 현대로보틱스 출범 이후 첫 CP 발행... 1000억원 규모

<http://lnr.ii/dTYTY>

만기는 내년 12월 14일까지로 1년물: 마침 1년물에 투자하려는 기관이 나타났다"며 "금리 조건 등을 살펴보고 CP를 발행했다"고 설명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가스공, LNG선 국산화 지연 소송전... '100억대 소송 vs 중재 노력'

<http://lnr.ii/xALIL>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0일 "설계 잘못으로 선박 인도 시한이 6개월가량 지체되면서 지체상금 23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 기술 설계를 담당한 가스공사와 그 자회사인 KC LNG테크(KL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소송가액은 100억원대 지난 2014년 LNG선의 저장탱크 제작 기술을 국산화한 LNG선 2척을 4500억원에 건조하기로 하고 가스공사, SK해운 등과 계약 가스공사와 그 자회사인 KC LNG테크(KLT)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기로 한 LNG선의 핵심 설비인 멤브레인(저장탱크 내벽) 설계하고, ... 제작은 국내 유일의 LNG 멤브레인 제작업체인 TMC가 하기로 했지만 멤브레인 제작이 지연되면서 납품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 9월 완료돼야 할 선박 인도가 내년 3월로 6개월가량 미뤄짐: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23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부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법 "공정위 과정금 전액 대우조선해양에 돌려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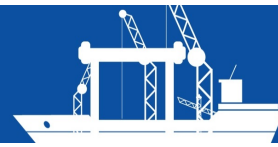
<http://lnr.ii/nVTY>

11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과정금 267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300억원 돌려받음 사건 하도급계약 기간인 2008~2009년의 1인당 기성금액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작업을 위탁한 89개 하도급 업체들에 줄 하도급 대금을 산정할 때 ... 협의 없이 근로자 작업 투입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덜 지급했다고 보았음

△ 방사청 "차기 잠수함구조함 건조해 2022년 해군에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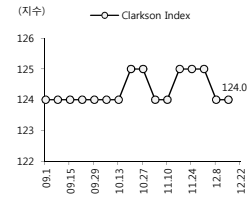
<http://lnr.ii/rpXnO>

5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5천 200톤급 차기 잠수함구조함(ASR-II) 탐색개발 인도 서명식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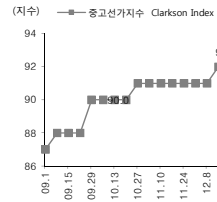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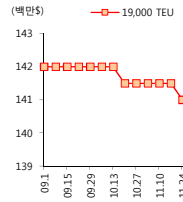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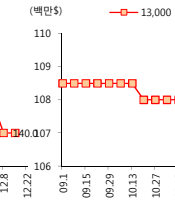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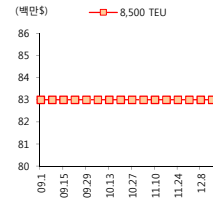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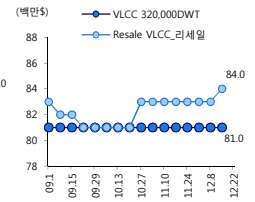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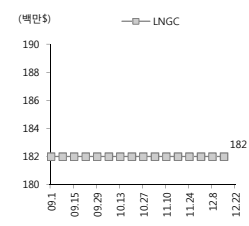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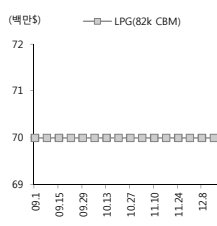
▶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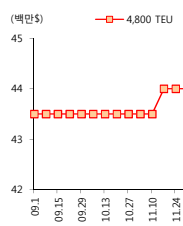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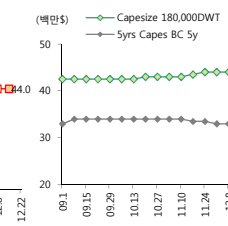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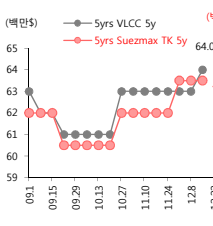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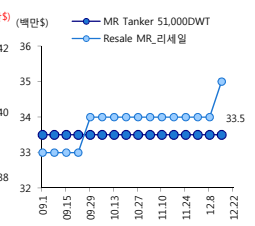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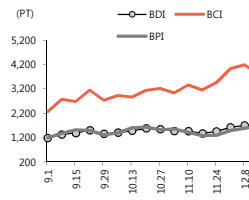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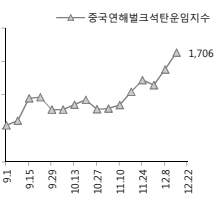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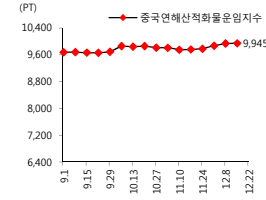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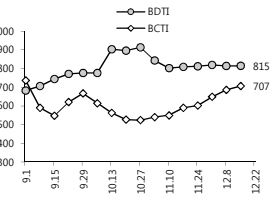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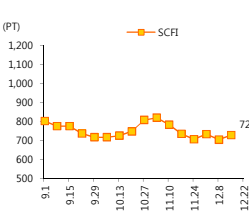
▶ 중국연해석탄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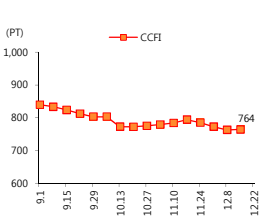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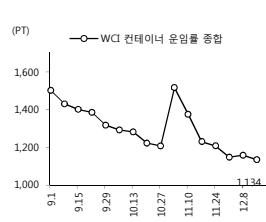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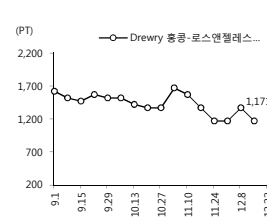
▶ 컨선 지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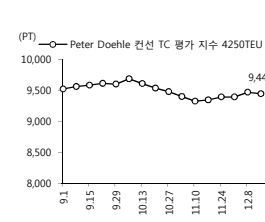
▶ 컨선 지료들



▶ 컨선 지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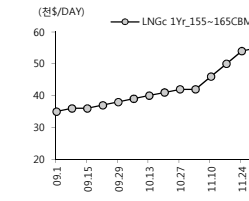


▶ 컨선 지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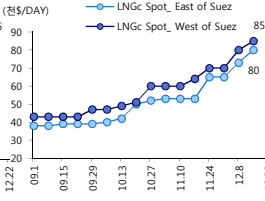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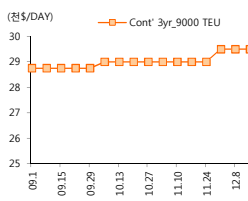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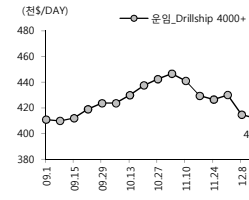
▶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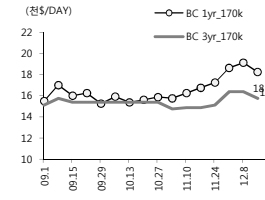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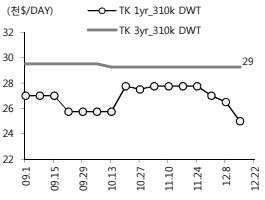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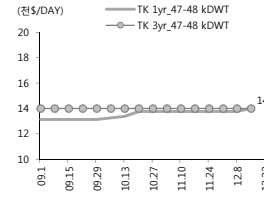
▶ 벌크선 - 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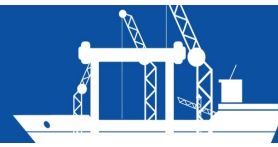


▶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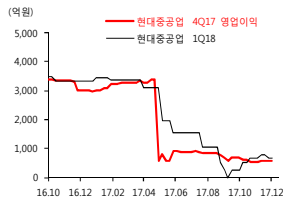
▶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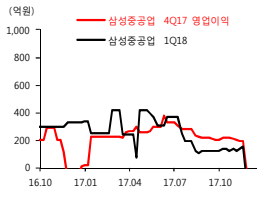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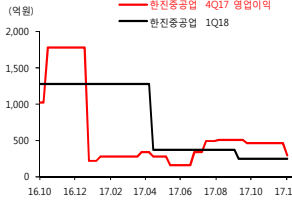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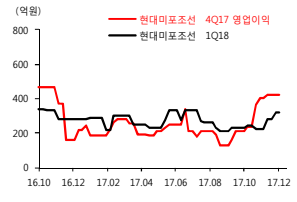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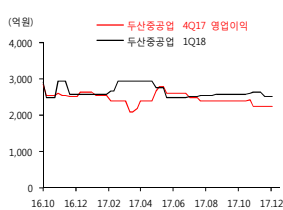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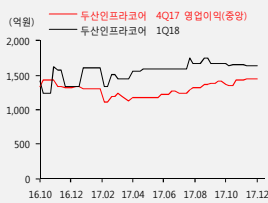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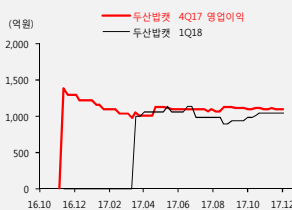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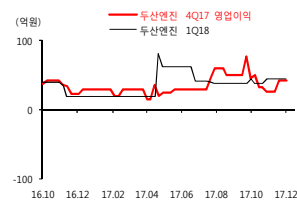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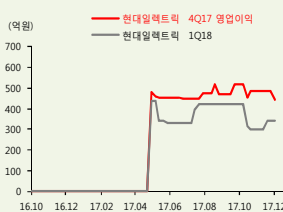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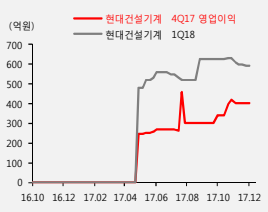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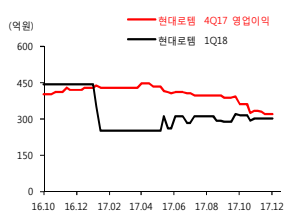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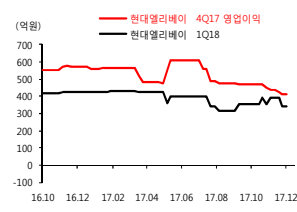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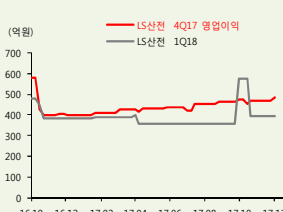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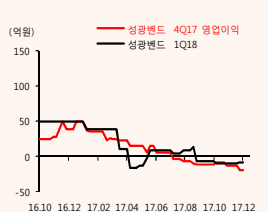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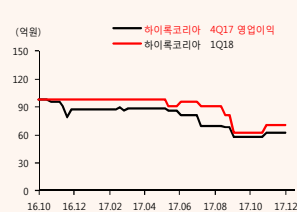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2017 EPS(원)										Chang(%)		VALUATION		
그룹	종목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1.18	17.11.25	17.12.02	17.12.09	17.12.15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6,109	5,812	19,290	30,460	43,999	43,800	43,800	43,801	43,801	44%	0%	3.1	135,000
	삼성중공업	291	270	285	286	289	297	297	-693	-693	적진	적진	-10.6	7,330
	현대미포조선	4,820	8,676	9,759	10,822	19,037	19,037	19,037	19,038	19,038	76%	0%	5.0	95,100
	한진중공업	-269	-123	-418	-764	-883	-883	-910	-910	-1,037	적진	적진	-3.2	3,330
두산	두산중공업	1,454	1,061	689	601	-447	-447	-563	-563	-563	적진	적진	-28.6	16,100
	두산인프라코어	808	870	890	896	991	991	990	990	990	10%	0%	9.0	8,910
	두산엔진	178	188	177	155	142	142	151	151	151	-3%	6%	27.4	4,150
기계	현대건설기계	28,411	32,313	30,769	30,502	14,600	14,415	14,600	14,606	14,606			11.9	174,000
	현대일렉트릭	27,046	26,902	26,424	26,323	25,232	12,124	12,180	12,180	12,338			9.3	114,500
	LS산전	3,673	3,862	3,900	3,925	4,079	4,120	4,120	4,120	4,128	5%	1%	15.5	64,100
	현대엘리베이터	5,326	4,991	4,420	4,290	3,897	3,897	4,896	5,030	5,030	17%	29%	10.7	53,600
방산	현대로템	639	523	465	419	411	430	421	421	421	0%	3%	45.8	19,300
	한국항공우주	2,456	2,200	1,625	1,418	-535	-599	-642	-669	-669	적진	적진	-70.1	46,900
	한화테크윈	2,200	1,964	1,807	1,695	1,173	1,173	1,097	1,097	1,097	-35%	-6%	32.5	35,700
	LIG넥스원	3,705	4,557	4,651	4,681	2,680	2,680	2,544	2,544	2,140	-54%	-20%	27.0	57,800
피팅	성광벤드	-75	-82	-148	-189	-256	-288	-288	-290	-290	적진	적진	-35.3	10,25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59.9	11,300
	하이록코리아	1,896	1,837	1,869	1,873	1,983	1,983	1,996	1,996	1,996	7%	1%	10.9	2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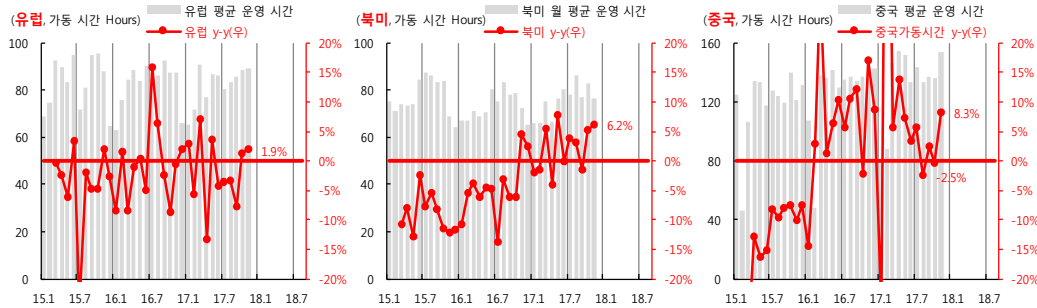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1.18	17.11.25	17.12.02	17.12.09	17.12.15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07,712	205,482	212,707	217,167	226,237	225,971	225,971	225,971	225,971	19%	1%	0.6
	삼성중공업	18,788	18,711	18,724	18,767	18,813	18,817	18,817	17,887	17,887	-4%	-1%	0.4
	현대미포조선	113,175	119,596	121,335	118,941	127,640	127,640	127,640	127,640	127,640	15%	3%	0.7
	한진중공업	8,453	8,810	8,679	8,207	8,025	8,025	8,025	8,025	7,983	-13%	0%	0.4
두산	두산중공업	30,702	30,118	30,062	30,126	29,377	29,377	29,412	29,412	29,412	-2%	5%	0.5
	두산인프라코어	10,684	10,868	11,050	10,368	10,693	10,694	10,502	10,502	10,502	9%	10%	0.8
	두산엔진	7,877	7,949	7,921	7,773	7,773	7,773	7,821	7,821	7,821	2%	1%	0.5
	두산발켓												
기계	현대건설기계	231,663	234,252	267,853	282,415	111,696	108,830	112,672	113,662	113,662	13%	13%	1.5
	현대일렉트릭	232,450	225,780	243,098	242,828	276,425	100,489	108,862	108,862	104,726	12%	10%	1.1
	LS산전	38,940	39,086	39,113	39,413	39,589	39,624	39,624	39,624	39,621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37,757	37,050	35,026	35,026	34,503	34,503	41,246	38,605	38,605	13%	13%	1.4
방산	현대로템	17,059	16,964	16,860	16,758	16,748	16,780	16,769	16,769	16,769	3%	5%	1.2
	한국항공우주	16,256	15,904	15,370	15,299	13,400	13,338	13,384	13,367	13,367	-5%	12%	3.5
	한화테크윈	45,667	45,246	45,013	44,892	44,180	44,180	44,061	44,061	44,061	2%	4%	0.8
	LIG넥스원	31,402	32,127	32,210	32,241	30,239	30,239	30,100	30,100	29,812	7%	12%	1.9
피팅	성광벤드	16,540	16,540	16,479	16,479	16,362	16,315	16,315	16,311	16,311	-2%	1%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7
	하이록코리아	23,849	23,776	23,800	23,800	23,947	23,947	23,947	23,947	23,947	8%	8%	0.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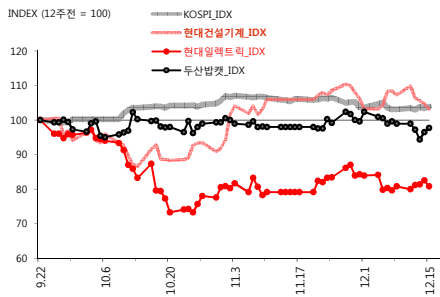
금주의 그림

▶ Komatsu 지역별 굴삭기 가동 시간: 11월 유럽/북미 호조 지속 & 중국도 양호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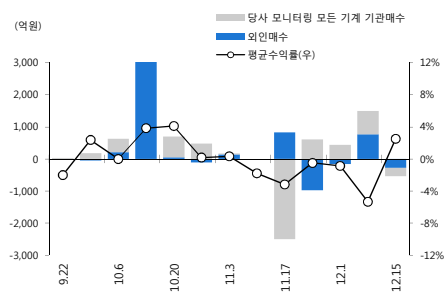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탈원전 & ESS

△ 8차 전력수급계획 신규 설비 LNG 4GW, 신재생 5.5GW

<http://lnr.li/x6zoB>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논의
정부는 2022년까지는 약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원전 감축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

... 2031년에는 9.5GW가량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봄

앞으로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5.5GW)와 LNG발전소(4GW) 건설로 보완한다는 계획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3.5GW를 설치하고

5~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신규 석탄 9기 중에서 7기는 기존 계획대로 건설하되, 당진에코파워(1160MW)만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로 결정
포스코에너지의 삼척화력(2100MW)도 아직 인허가 단계여서 연료전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

... 매출비용이 워낙 큰데다 회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

...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석탄발전소로 건설하기로 결정

△ 한국전력, 영국 이어 사우디 원전 수주 레이스 돌입

<http://lnr.li/oQVsb>

한전은 이달 말 사우디에 원전 기술과 사업실적 등을 담은 정보제안요청서(RFI) 회신자료를 보냈고,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사업자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1차 목표

사우디는 지난 10월 주요 원전 수출국에 RFI를 보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소련·중국·프랑스·일본·미국 등이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일본 도시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고, 미국에선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이 예상

사우디는 2032년까지 17기(17.6GW) 원전을 건설할 계획. 이 가운데 2기를 내년에 계약할 예정

사우디 사업은 UAE처럼 설계·조달·시공(EPC) 통합수주 형태일지, 영국 원전처럼 건설 후 전력판매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발전사업(IPP66) 방식이 될지 미지

△ 현대일렉트릭, 현대중 불가리아법인 336억원에 취득

<http://lnr.li/11Z4N>

불가리아법인(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지분 99.09%를 336억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14일 공식

회사 측은 "변압기 원가경쟁력 확보와 탭체인저(Tap Changer) 사업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중동과 CIS시장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올해 ESS 민간금융 500억원 초과할 듯

<http://lnr.li/11p1M>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출시한 'ESS협약보증대출상품'의 경우 9개월 만에 ...

... 6개 시중은행에서 ESS 투자·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및 중소 중견기업에 융자금 409억4500만원을 지원

올해 안에 대출은 500억원, 렌탈은 34억원 이상 금융지원이 무난히 집행될 수 있다고 전망



건설기계

▷ 두산인프라, 밥캣 블록딜 '절묘한 줄타기'

<http://lnr.li/r9Mn0>

밥캣 지분 상당수가 차입 담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칫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빠지면 추가 담보를 채워 넣는 상황에 직면
블록딜 이후 밥캣 잔여 주식은 5547만 6250주(지분율 55.33%)에, 두산엔진이 보유한 지분(10.55%)까지 감안하면 ...

... 밥캣 지분을 계속 팔아 재무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높음

문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밥캣 지분이 대량 차입 담보로 제공된 점

: 추가 하락으로 약정 담보한도액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담보를 내놓거나 대출금을 조기상환해야 함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 6억 달러의 해외사채에 밥캣 주식 2206만 1303주를 담보로 제공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권 11곳에서 차입한 5500억 원에 대해서도 2543만 2532주가 담보로 묶임

SC은행(1000억 원)과 BNP(500억 원)측에 제공한 주식은 각각 500만 4125주, 204만 3423주

▲ 진성티이씨, 中 공장 추가 증설

<http://lnr.li/n72yT>

진성티이씨가 중국 연대공장(진성산업유한공사) 추가 증설로 총 생산능력을 올해 600억원 규모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함
회사 관계자는 11일 "연대공장내 여유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설비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

... "설비 셋업이 완료되면 상반기 1000억원 규모 매출 반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힘

▷ 현대건설기계, 현대힘스로부터 기계장치·차량운반구 등 양수

<http://lnr.li/KrFE>

회사 측은 "건설기계용 유압모터 생산 관련 자산을 양수했다"고 설명. 양수금액은 128억 원

△ 현대건설기계, 중형휠굴삭기 등 위탁생산 추진

<http://lnr.li/GeTBz>

제조원가 절감 등 생산운영 개선을 위해 일부 완성 제품의 위탁생산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

△ 현대건설기계, 중국·인도 공장 인수...2884억원

<http://lnr.li/fETal>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중국 굴삭기 생산법인인 '현대중공업투자유한공사'의 지분 60%를 2216억원에 매입한다고 14일 공시

현대중공업의 지분율은 처분 뒤 40%가 남는데, 100%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중국법인에서 진행중인 플랜트, 엔진 판매업무 등을 계속하기 위함
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 생산법인(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vt. Ltd.)의 지분 전량(3118만4636주)을 668억원에 매입

두 건의 지분 매입은 모두 장외거래로 진행될 예정. 최근 현대건설기계는 2개 법인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약 38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음

△ "매각하지만 할 건 해야"...두산밥캣, UAE에 포터블파워 OEM공장 설립

<http://lnr.li/dXbZl>

두산밥캣 포터블파워 사업부가 현지 업체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맺고 중동 지역에 이동식 발전기 제품을 판매

포터블파워 사업부에 대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획대로 판매망을 확대한다는 전략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지역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동식 발전기의 판매를 시작

현지 업체가 발전기 제품들을 생산하면 두산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

두산밥캣은 미국과 인도에 이동식 발전기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체코,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OEM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

큰 기계들

▷ 두산엔진 "MSC 수주 실패 보도, 사실 아니다"

<http://lnr.li/qw6WR>

13일 '두산엔진, MSC 수주전서 고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두산엔진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5척에 들어갈 엔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맡길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

... "MSC가 발주하는 컨테이너선용 엔진 수주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협상 중이다"라고 13일 공시

▷ 두산엔진, 인적분할 방식 매각도 추진..."부채 이전 목적"

<http://lnr.li/vui3z>

두산그룹 측은 잠재 인수후보들에게 ▲인적분할 ▲물적분할 ▲사업양수도 형태의 거래 구조를 제안 중. 이 중 인적분할한 후 매각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

두산엔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매각하되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밥캣(10.6%), 두산건설 및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자산은 나머지 회사에 남기는 방식 유력
인수후보들에 신설 사업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존 부채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도 묻는 것으로 전해

: 매각자 측은 인수자들이 1000억원 수준의 차입금을 가져가 주길 희망하는 분위기

이달 18일까지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매각 주관은 크레디트스위스(CS), 법률 자문은 김앤장, 회계 자문은 삼일PwC가 맡음

▷ 두산엔진 20일 예비입찰 실시...매각가·인수후보 관심

<http://lnr.li/4iri>

현재 두산엔진의 차입금 규모(2000억 원) 등을 고려하면 지분 100% 매각가는 3000억~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

두산그룹은 지분 42.66%의 매각가로 5000억 원 안팎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체급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가격



작은 기계들

△ 씨에스윈드, 65억원 규모 윈드타워 공급계약

<http://lnr.li/s6ySx>

센비온 윈드 에너지(Senvion Wind Energy)와 아르헨티나 지역에 65억원 규모의 윈드타워를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고 11일 공시

△ 씨에스윈드, 120억원 규모 윈드타워 공급 계약

<http://lnr.li/v5KsM>

GE 윈드 에너지(Wind Energy)에 윈드 타워(WIND TOWER)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

▽ 유니슨, 419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차입금 상환 목적"

<http://lnr.li/OWaXi>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 신주는 보통주 13,000,000주로 전체 주식의 16.3% 수준이며, 기준주가 대비 할인율은 25%

신주배정기준일은 2018년 1월 5일이며, 납입일은 2월 13일로 예정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로 차입금 상환을 통해 패스트트랙프로그램(FTP)을 탈피함과 동시에 차입금 재구조화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

... "이를 통해 연간 이자비용 20~3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회복으로 국내외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자본확충을 통해 4.2MW급 이상 대용량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육·해상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진성티이씨 "1주당 180원 이상 현금배당 계획"

<http://lnr.li/Nd54n>

1주당 180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13일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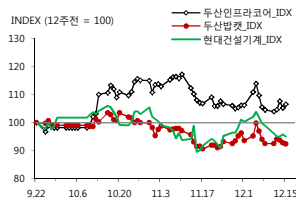
△ KC코트렐, 현대로템과 776억원 규모 청정설비 공사 계약

<http://lnr.li/WKp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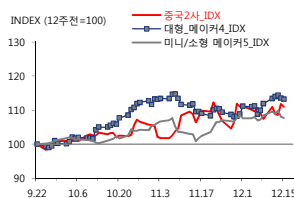
당진 1.2소결 배가스 청정설비 신규제작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

작년 매출액 대비 43.26% 규모다. 계약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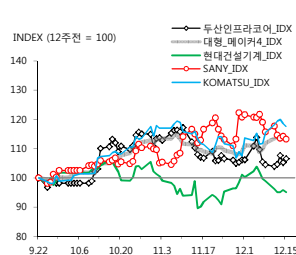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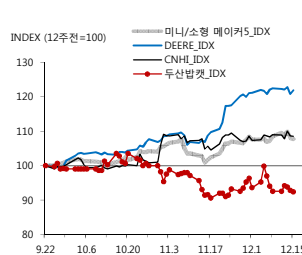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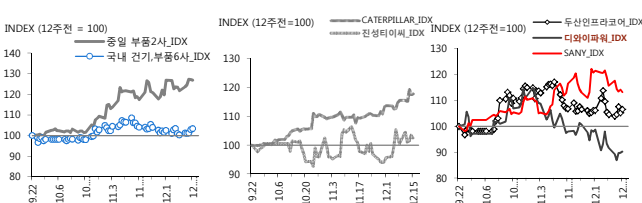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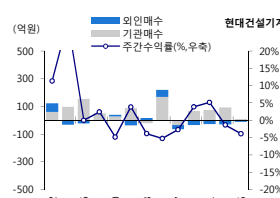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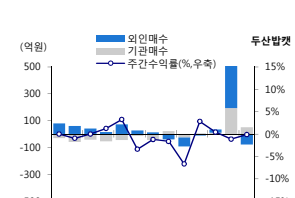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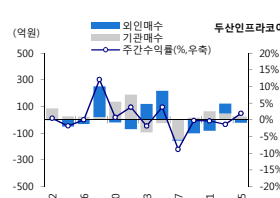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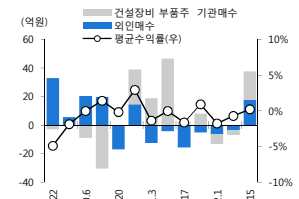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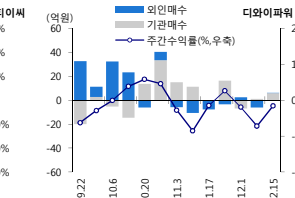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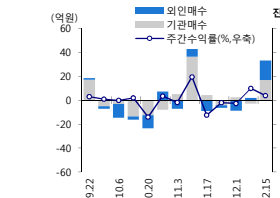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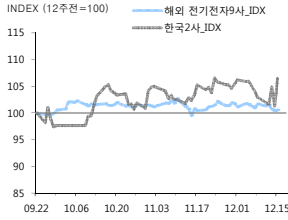
주식) 부품주4사: 진성티이씨, 디와이파워, 동국, 동일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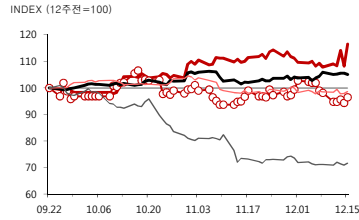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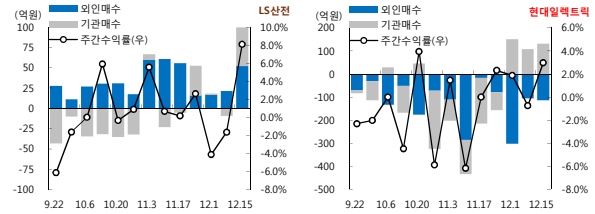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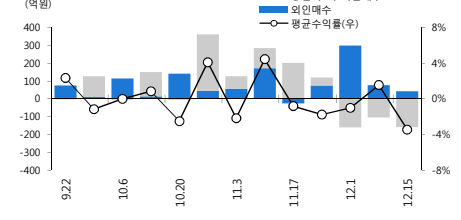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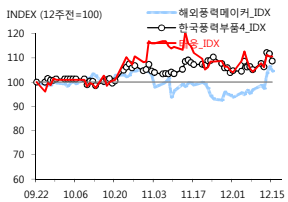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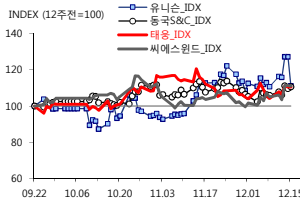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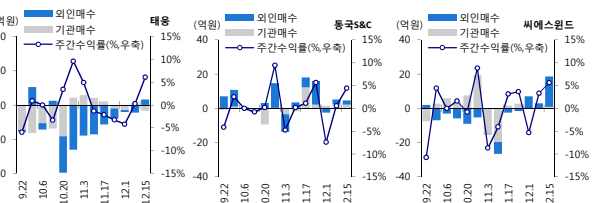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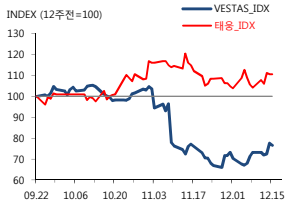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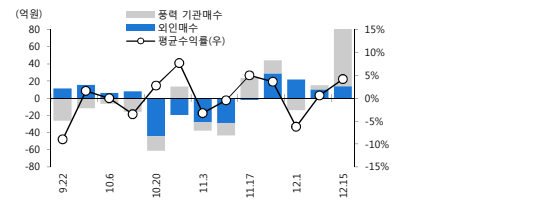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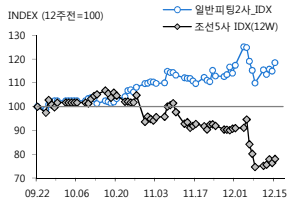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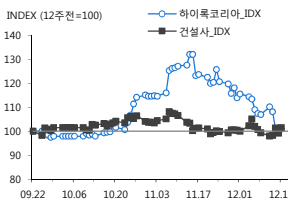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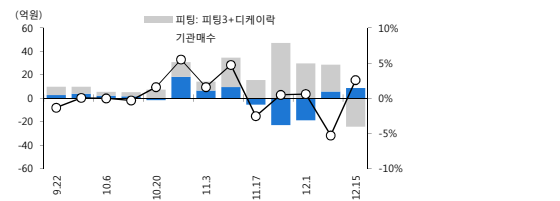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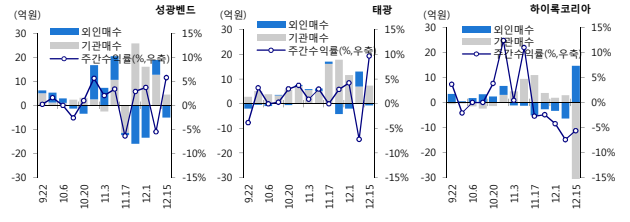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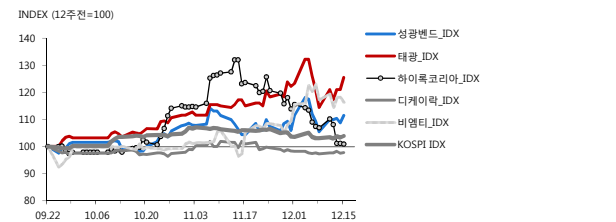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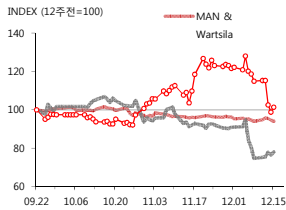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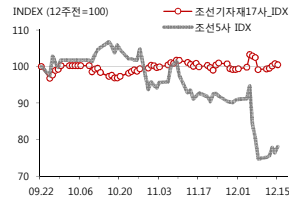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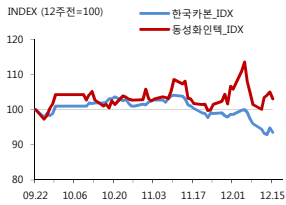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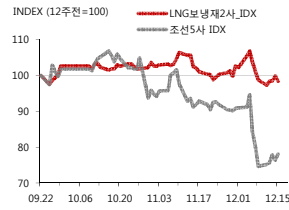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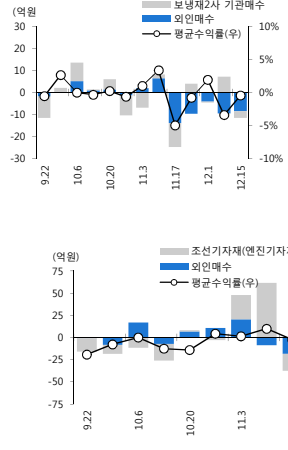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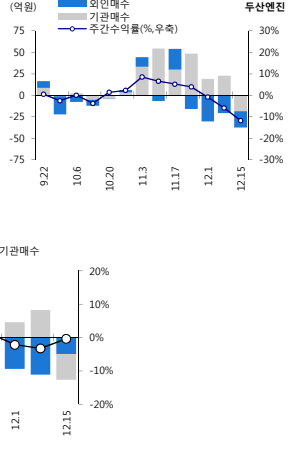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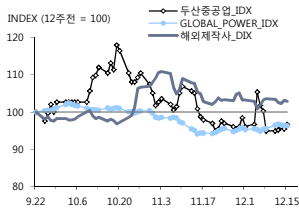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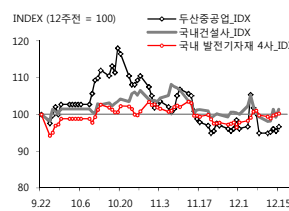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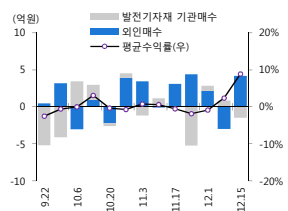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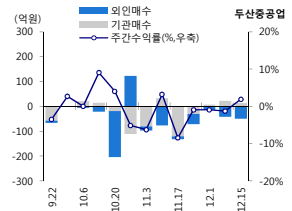


발전업 수급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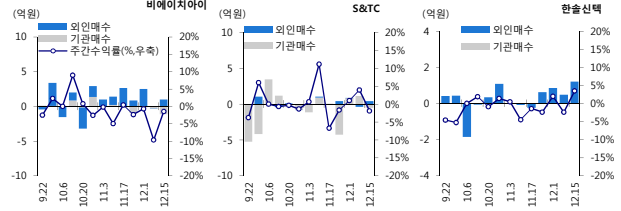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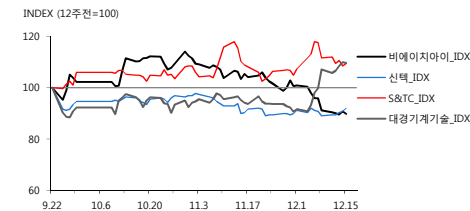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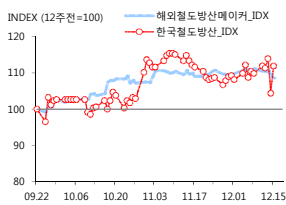
주식) 비에이지아이, S&TC,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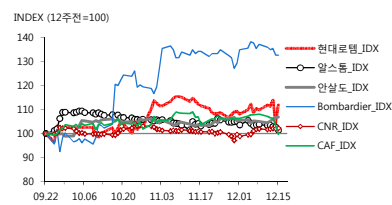


철도/승강기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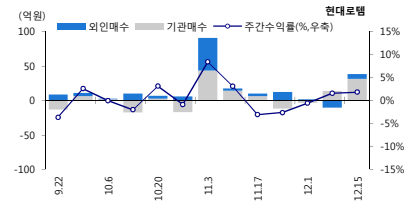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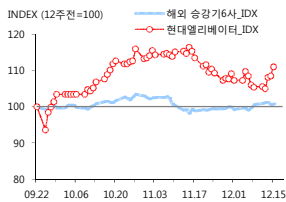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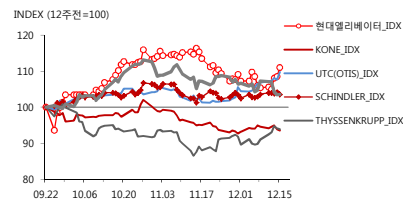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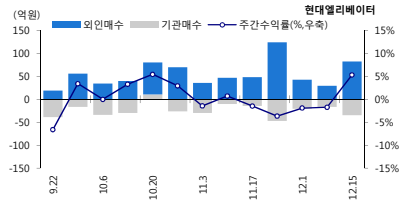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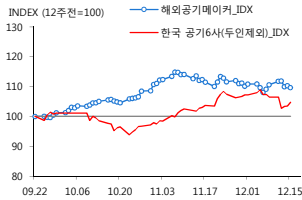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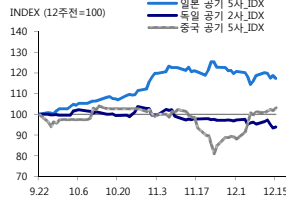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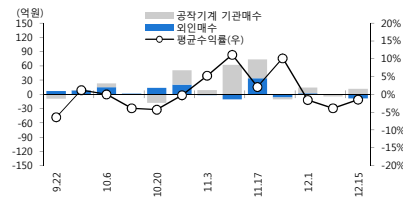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중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중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중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중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9-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8.3 %	11.7 %	-